

의 서버제품군인 네피니티와의 호환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IBM은 이들 라우팅 장비 및 스위치에 IP를 통한 음성전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로터스가 인수한 소프트웨어 업체 데이터빔의 기술을 기반으로 음성신호를 패킷화해 음성을 전달하는 다양한 SW를 공급할 계획이다.

## 홈PC '압티바 시리즈' 발표

미국 IBM이 음성인식기능을 지원한 홈PC [압티바 E시리즈] 새 모델을 발표했다.

IBM의 신형 [압티바 E시리즈]는 자사 [바이어보이스]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를 내장,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나온 제품은 [E3U] [E5U] [E6U] 3가지 모델로 이중 하위모델인 [E3U]는 AMD의 350MHz K6-2에 64MB D램, 8GB HDD, 4MD 싱크로너스 그래픽 램(SG램), 최고 3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다. 가격은 1,099달러.

또 인텔 350MHz 펜티엄Ⅱ를 탑재한 [E5U] 모델은 96MB D램, 8GB HDD, 4M SG램, DVD 드라이브 등을 포함해 가격이 1,399달러다.

400MHz 펜티엄Ⅱ 기반의 [E6U]는 128MB D램, 13.5GB HDD, 4MB SG램, DVD 드라이브 등을 갖추고 있으며 1,799달러다.

IBM은 그동안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에만 지원돼 왔으나 기술진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중하위계층에의 채용이 가능해졌다고 앞으로 이를 압티바 전기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IBM은 333MHz K6-2를 탑재한 [압티바 E2U]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은 48MB SG램, 최고 32배속 CD롬 드라이브를 포함, 899달러에 공급될 예정이다.

IBM은 E2U의 경우 [바이어보이스]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지는 않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 38mm² 초소형 첨단 64MD램, 내년 봄 양산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현재 출시되고 있는 64MD램 가운데 업계 최소형인 첨단 64MD램 가운데 업계 최소형인 첨단 64MD램을 내년 봄부터 싱가포르 거점에서 양산한다.

히타치는 실적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64MD램의 채산성 확보 차원에서 현재 자국내와 싱가포르 양분돼 있는 64MD램 생산을 싱가포르에 집중시키기로 하고, 지금까지 국내 공장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첨단 64MD램 생산을 싱가포르 생산 자회사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히타치는 이를 위해 현재 웨이퍼 처리규모가 월 5천장인 싱가포르자회사에 약 150~200억엔을 투자, 내년 중에 처리규모를 2만장으로 끌어올려 첨단 64MD램 생산개수를 월 1천만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히타치는 특히 싱가포르 공장에 0.18μm 미세가공설비를 도입해 38mm 크기의 업계 최소형 첨단 64MD램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요 확대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